

통권 제 180호

2562
2018

10

불교 이야기
멸성제 4



심선성취
육바라밀 (1)
보시·지계·인욕



설화속으로
조리와 속리 2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수행

은혜를 고맙게 여기면
은혜가 장원하고
만사에 족함을 안즉
불만이 스스로 해소되느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계율이야기 _ 12

승가의 계율
- 바일제법 波逸提法
_ 법경



디딤돌 _ 54

푸르른 날에는
_ 지현



결망에 담긴 이야기 _ 72

흥밋거리로 만들다
_ 법일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28 산책

30 십선성취

36 마음의 등불

40 애견 칼럼

44 법향기

50 설화속으로

54 디딤돌

56 차향기

60 독자기고

62 새이야기

66 씨앗 한알

68 소통의 공간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멸성제 4 _ 화령

설사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더라도 _ 새뮤얼 레이번

승가의 계율 - 바일제법 波逸提法 _ 법경

꽃, 마음껏 피어라 그래야 꽃이다 _ 이옥경

사람의 얼굴 _ 강동현

그리움 _ 김대곤

육바라밀(1) - 보시·지계·인욕 _ 덕현

내 마음속의 정원 _ 박영원

위생관리 _ 권도형

염송하면 마음도 정신도 맑아져 _ 박영자

조리와 속리 2 _ 보현

푸르른 날에는 _ 지현

차 도구의 중요성 1 _ 김정애

부처님을 보았는가 _ 여순애

참새 Tree sparrow (Passer montanus) _ 정옥식

보살의 길 _ 윤홍식

우산이 되어 주리라 _ 탄허 스님

흥밋거리로 만들다 _ 법일

의도록 _ 김재동

유아무야 有耶無耶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급하게도 말고 게으르게도 말라

어떤 사문이 밤에 경을 읽다가 그 뜻을 알지 못해 슬퍼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문을 불러 물으셨다.

“네가 옛날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줄이 느슨하면 그 소리가 어떠하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줄이 너무 조여지면 그 소리가 어떠하더냐”

“소리가 너무 높고 짧았습니다.”

“조여짐과 느슨함이 알맞으면 어떠하더냐”

“모든 소리가 조화되고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마음이 만약 적당하게 고르면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도에 너무 조급하면 몸이 곧 피곤하다.

그 몸이 피곤하면 고달픈 마음이 일어나고, 고달픈 마음이 생기면

수행이 곧 퇴보되며, 그 수행이 퇴전하면 죄를 반드시 범하게 되는

것이니, 다만 청정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행하면 도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 『사십이장경』



멸성제 4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열반은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인도말인 니르바나를 한자음으로 열반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원래 니르바나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번뇌, 즉, 탐진치의 괴로움의 불꽃이 꺼져서 식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늙어서 병들어 죽는 처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곧 괴로움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여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을 보통 생사를 초월했다든가 불사의 경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죽음이 없다든가 생사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생사계의 바깥에 따로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떠난 열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도 열반이 찾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번뇌가 있고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습니다. 번뇌가 없다면 열반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도피안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 세계를 떠나서 달리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반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80 세로 입멸하실 때까지 늘 열반의 상태로 계시면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열반이 반드시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석가모니부처님의 이러한 열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에 의하여 무명을 제거했을 때에 얻어지는 절대 평안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세계를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내면세계가 바뀌어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없는 지혜에 의하여 미망에 덮인 존재의 실상이 드러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모두 우리의 무명에 의하여 나타나는 번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뿐만 아니라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성자들은 모두 생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반에 있어서 생사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생사윤회의 세계라는 것은 선악업의 지배를 받고 업보에 좌우되는 것인데 무명 중생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혜의 등불에 의하여 일체의 번뇌를 태워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집착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집착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자재의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생사윤회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이미 그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락이나 일신의 안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써 무명을 밝히게 되면 마음에 장애되는 것이 없고, 장애가 없게 되면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모든 잘못된 망념을 여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여의어 마침내 열반을 얻게 된다’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想，究竟涅槃。’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러한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이른 부처님께서 무애자재無礙自在로써 오직 중생 제도에 전념할 따름입니다. 밀교의 경전인 《대일경》에서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도 성불의 궁극적 경지가 바로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의 활용에 있다는 뜻입니다. 열반을 얻은 성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가 그대로 불국토입니다. 불국토가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침을 얻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분별도 없어지고 집착하고 두려워 할 아무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이 세계는 그대로 불국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확대되어서 무명 중생에게까지 미쳐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은 성

자들의 자비에 의하여 서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열반에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무애자재의 경지가 이 무주처열반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상은 바로 이 무주처열반이며, 깨달아서 무주처열반에 머무르는 분들은 어떠한 결림도 없이 오직 자비로써 무명 중생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삶은 바로 이 무주처열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열반의 의미를 대략적이나마 파악하여 수행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병을 다스리는 원리를 사성제에 비추어볼 때 멸성제는 병이 없어진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즉, 열반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건전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모두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망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반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열반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없습니

다. 열반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성제를 통하여 이론적으로나마 열반의 의미를 유추해 봄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멸성제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고성제와 집성제, 그리고 마지막의 도성제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탐진치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우리가 탐진치를 제거하고 바르게 눈뜸으로써 괴로움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열반입니다. ♣



설사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더라도

새뮤얼 레이번
1882년 - 1961년
미국 정치인

오랫동안 하원의장을 지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매일 사람을 1백 명 넘게 만나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적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 많은 사람에게 한 말이나 약속을 어떻게 다 기억하나.”

그러자 정치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한다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네.”

거짓말은 때때로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력이 거짓말쟁이의 필수 요소라고도 하지요. 미국의 하원의장을 지낸 레이번은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한 말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승가의 계율

- 바일제법 波逸提法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계율 _ 41

바라이법 波羅夷法

승가에서 계율을 어겼을 때, 그 경중輕重에 따라 대가를 치르는데, 그 범계犯戒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칙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

가장 무거운 벌칙이 승가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이를 바라이波羅夷라 한다. 바라이라는 벌칙을 받게 되는 계율이 살·도·음·망教盜婬妄이다. 즉 살생·투도·음행·망어이다. 바라이는 중죄重罪라는 뜻이다. 출가자가 살생·투도·음행·망어를 하게 되면 승가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무거운 죄라는 뜻으로 중죄重罪라 하고, 이 네 가지를 사바라이四波羅夷·사중죄四重罪라 한다.

그러나 비구의 경우 바라이죄가 네 가지이지만, 비구니의 경우는 8가지로서 더 많다. 살·도·음·망教盜婬妄의 계율에 네 가지가 더 추가된다. 연정을 품은 남자와 서로 함께 애무하지 말라, 연정을 품은 남자와 8가지의 샅된 짓을 범하지 말라,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줄 알면서 이를 숨기지 말라,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비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바라이이다.



승잔법 僧殘法

바라이 波羅夷 다음의 계율이 승잔법 僧殘法이다. 승잔이란 계를 범하였을 때 승가 추방이 아니라 승가로부터 격리생활을 하였다가 참회를 통해 다시 승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율은 비구의 경우 13가지이고, 비구니의 경우는 17가지이다.

사타법 捨墮法

승잔법 다음으로 적용되는 계율이 지난 호까지 살펴본 사타법 捨墮法이며, 바라이나 승잔에 비해 조금은 가벼운 벌칙의 계율이다. 율장에 서도 ‘범한 바의 죄가 미미하기 때문에 바야제[사타법]라 한다.’고 하였다. 경미한 죄라는 의미다. 사타법은 30가지가 있다. 대부분 의복 衣服과 침구 衾具, 바루 등 물건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 사타법은 출가자가 소유를 금하는 물건을 지니고 있었을 때, 계에 저촉된 물건을 대중 앞에 내어 놓아야 하고[捨], 청정한 비구 앞에서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墮].

여기서 사하는 저촉된 물건을 내놓는 것이고, 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타에 대해서는 율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근본유부율』에서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였고, 『십송율』에서는 참회하지 않으면 ‘도를 가로막는다.’고 하였다. 『근본살바다부율집』에서는 ‘불에 타서 악취 惡趣에 떨어진다.’고 하였고, 『마하승기율』에서도 ‘악도 惡道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는 참회를 하지 않으면 선도 善道를 장애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일제법 波逸提法

사타법 다음의 계율이 이번 호에서 살펴볼 바일제법이다. 바일제는 단제 單提 또는 단타 單墮라고 번역하며, 앞서 살펴본 사타법이 모두 옷과 바루·공양·침구·약품 등의 물건에 대한 계율이라면, 바일제는 물건과 관계없는 언어, 행동, 마음 씩씩이 등 몸과 입과 뜻의 생활규범에 대한 계율이다.

그래서 이 바일제법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바를 참회만 하면 되는 죄이므로 단제, 단타라고 한다. 단지 버리기만 하면 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죄를 버리는 것이 곧 참회이며, 참회가 곧 죄의 소멸을 의미한다.





바일제는 출가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서 출가자의 생활 규칙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바일제법은 출가 수행자의 위의^{威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오늘날의 수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바일제는 비구의 경우 90가지가 있고 비구니는 178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소망어계^{小妄語戒}다.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다. 평소 소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분율』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언급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 계실 때에 석가족 출신의 상력^{商力}이라는 비구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여서 항상 외도 범지들과 논쟁을 즐겼다. 그러나 논리를 전개하다가 불리하면 경위가 없는 모순된 말로 억지를 부리고 허언^{虛言}을 밥 먹듯이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므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비구 비구니가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제이니라.”

자기 주장을 위해 무리하게 거짓 논리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논리와 근거에 입각한 주장이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비논리와 무책임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를 병들게만 할 뿐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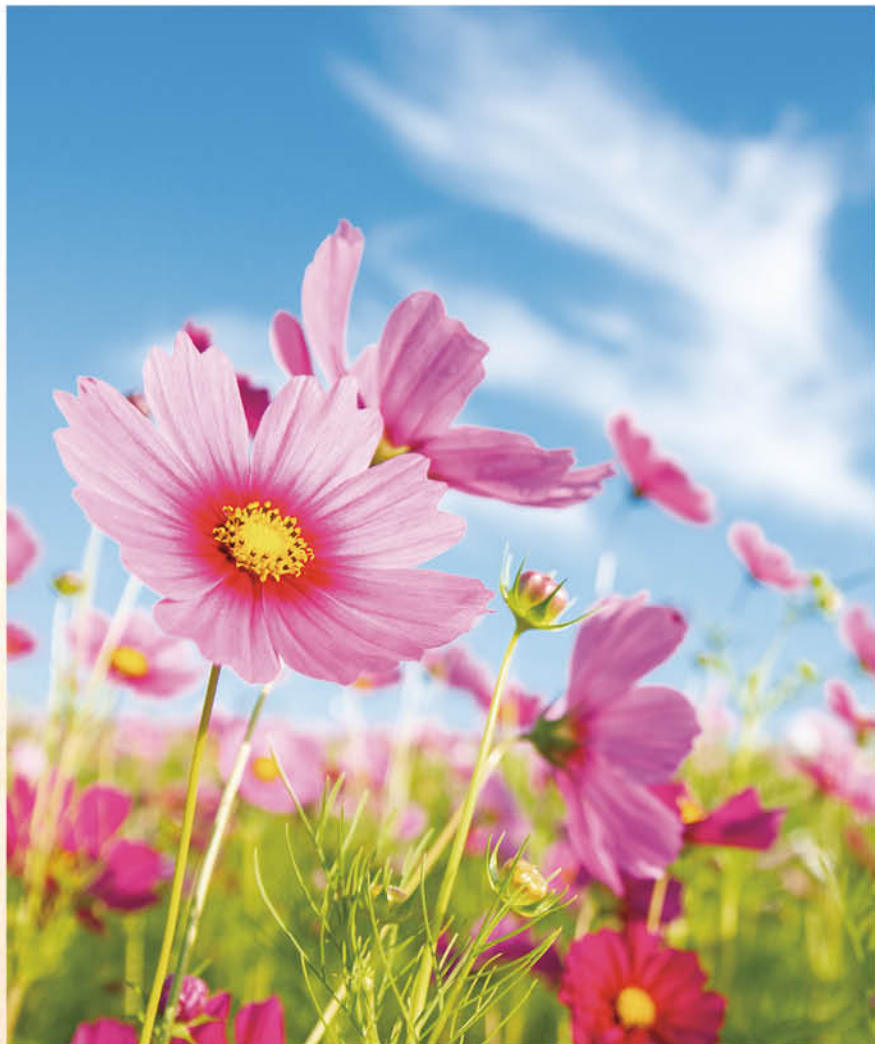
다음 호에서는 '훼자어계(毀譽語罵戒)-헐뜯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 마음껏 피어라 그래야 꽃이다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아침에 눈을 뜨니 온몸이 뻣근하다. 어제 손주 녀석의 운동회를 주름잡았던 여파다. 나는 손주 녀석과 발목을 묶고 하나둘 하나둘 구령을 붙여가며 이인삼각 경기를 멋지게 해냈고, 학부모 50m 달리기에서도 3등을 했다. (3명씩 뛰는 경기였지만)

이렇게 내가 손주 녀석과 뽀박질을 하게 된 건 올해 1학년이 된 녀석의 열화와 같은 청에 의해서다. 이 녀석은 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안다.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사철 밤낮 가리지 않고 저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끌고 다니며 뽀강아지 굴리듯 했으니 저도 나도 몸 튼튼, 마음 튼튼.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다.

2년 전 어느 잡지에 '10년 후'를 주제로 썼던 「희망 사항」이라는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았던 이 일을 현실로 바꿔 줄 놀랍고도 행복한 사건이 생겼다. 나와 함께 뽀박질할 손주가 태어난 것이다. 나를 할머니로 승격시켜 준 이 녀석은 글에서 얘기했던 대로 딱 10년 후, 딱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아직 백일도 안된 손주를 들여다보면서, 만국기 휘날리는 운동장에서 이 녀석과 함께 멋진 경기를 펼치려면 체력 단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제 부모야 뭐라든지 나는 이 녀석을 꼭 내 환상의 복식조로 만들 작정이다.

녀석에게 거는 나의 기대는 좀 남다른 편이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면 야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건 가슴이 따뜻한 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아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면서, 그보다 더 큰 바람이 어디 있겠냐고 지청구를 할 분도 계시겠으나 정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녀석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길 기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당장은 지금처럼 병글병글 잘 웃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웅가도 잘하고, 때 되면 영차! 뒤집기도 잘하고 온 방 안을 기어 다니며 온갖 것을 뒤집어엎고, 도리도리 짹짹도 큰 채주인 양 즐거워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며 뒹뒹둥 걸음마에 신바람 내는….

또래들과 어울려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노는 데 팔려 숙제도 잊어버리고, 제 엄마 아빠의 가슴에 걱정 하나 슬쩍 없어줄 만큼 호기심 가득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물질의 달콤함보다 자연의 질박함을 소중히 여기고 저 혼자 우뚝 자라난 큰 나무가 아니라 더불어 숲을 이룰 줄 아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재미있게 놀아주는 할머니가 되겠노라, 녀석의 부모, 즉 나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땅땅 못을 박았다. 자식을 똑똑한 아이로 키우

고 싶은 부모의 뜻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게는 할머니라는 특권이 있지 않은가. 녀석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꽃 필 수 있다면 불량 할머니쯤? 일도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치 건너 두 치, 나는 녀석의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만 듣고도 그럼, 그게 그렇더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선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에이, 뭘 그래? 다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아들 며느리 눈치 같은 걸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호언장담하는 (예전의 나처럼)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것이고. 정답이 따로 있겠나만 살아보니 어디 그렇던가. 세상사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면 근심 걱정이 왜 있겠는가.

문제는 손주 녀석의 부모, 즉 내 아들과 며느리다. 이걸 이래서 안 된다고 쓰악한 표정을 짓다가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마땅치 않아 하다가 급기야 접근 금지령(?)이라도 내리면 어찌겠는가. 솔직히 말해 할머니는 힘이 없다. 지금도 아이 돌보는 일에 이르고저리고 하면 단순히 의견을 내비쳤을 뿐인데도 책에는…, 인터넷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답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훗날 학교로 학원으로 땡땡이를 돌아야 할 녀석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쏘다닌다? 맹모삼천지교라고, 지금도 열혈 부모의 싹이 보이는 아들 며느리가 어찌 나올지는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도 내 생각은 다르다. 모두 다 행복을 꿈꾸는 것처럼, 아이들이 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건 월권이다. 어른들이 만든 대한민국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연구보고처럼 '학생들이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나라'이며 2009년 이래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다. 아이들이 똑똑해야 한다고? 아니다.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의 비유가 적합하지는 않겠으나 <중일아함경>에서 부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이 마음의 행복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행복의 힘이며 부처의 길(佛道)도 역시 행복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도 하셨다.

행복도 스스로 짓는 만큼이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다. 제 이름대로, 제 색깔대로 피어나야 꽃이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꽃이 된다. 그래야 세상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아이고, 다리 허리 어깨야~ 온몸이 다 쭈신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 손주가 조른다고 해서 냉큼 '할머니와 함께 춤을!' 경연 대회에 OK를 하다니.... 젊어서는 나도 '한 춤' 했는데 요즘 춤은 흥내 내

기도 어렵다. 게다가 우리 손주 놈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한지! 연습할 때면 "이 여사, 그게 아니고!", "이 여사, 또 틀렸어!", "이 여사, 이렇게 하라니까!" 잔소리가 바가지로 쏟아진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손주 놈이 1등 상품인 여행상품권을 받아서 이 할머니와 함께 배낭여행을 가겠다는걸.

겸허한 다짐을 담아 또다시 써 보는 훗날의 일기다. 넘치는 사랑을 주되 맹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되 간섭하고 속박하지 않기를. 언제나 엄지 척~ 수고했어! 잘했어! 백 번 천 번 믿어 줄 수 있기를. ♫



내 얼굴은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한 얼굴 덕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요즘에는 비슷한 얼굴이 동네에 최소 세 명은 되는 것 같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은 크고 몸도 동글동글하니 종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해 받는다. 길 가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저, 아니에요.” 하고 지나간다. 나랑 친한 애기 엄마가 사실 나랑 닮았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둘을 헛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둘은 사실 착해 보이는 비슷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너그럽지도 않은데 남들이 착하게 봐주니까 그걸 그냥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착한 척 한다. 그것도 쉽지 않다.

얼마 전 비오는 날이었다. 딸과 함께 우산을 하나씩 쓰고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비를 맞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할머니, 이 우산 쓰고 가세요.” 하고 내가 쓰고 있던 우산을 드렸다. 할머니는 집이 가까우니 괜찮다고 하시기에 비를 피하시라고 우산을 씌워드렸다.

“아이고, 새댁이 착하네. 이렇게 착하니 살이 찌지.”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그만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는 할머니 말씀에 듣고, “할머니, 착해서 살이 찢 게 아니고요.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라서 그래요.” 하고 웃었다.

다른 사람이 나 같이 동글동글한 사람들을 보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얼굴만 보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다. 얼굴은 마음을 나타내는 창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선부른 판단은 하지 않고 찬찬히 사람을 들여다보고, 오래 보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무료 급식 봉사를 가게 되면 봉사자들보다 더 일찍 나와 반찬을 만드시고 우리가 도착하면 뒷방 노인들처럼 물러 앉아 계시는 노 보살님들이 계셨다. 얼굴에는 범접하지 못할 어떤 느낌을 팍팍 풍기시는 탓에 말 한 마디 못 부치고 눈치만 슬슬 보게 되는 얼굴. 처음 봉사 오면 설거지가 기본인데, 나는 초벌 설거지는 못하고 일이 많다는 행구는 일을 했다. 초벌 설거지에 그릇이 많으면 행궁이 끝나고 그 일도 도와야 하고 식탁도 행주로 닦고 행주도 빨고 일이 좀 많아서 행구는 일

은 대개 처음 봉사 오거나 나이가 젊은 측에 드는 사람이 맡게 돼있다. 그런데 밥을 푸고 반찬을 올리는 일에는 나름 규칙이 있었나보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역할을 분배하는데 보기에는 후덕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보살님이 자기가 밥 푸는 일을 해야 된다고 큰소리를 내셨다. 누구는 밥 푸고 누구는 호박 볶음을 올리고 누구는 콩나물을 올리는 일이 그토록 열정적인 토론거리라는 사실이 신기했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다들 자기 좋으라고 봉사를 하러 왔는데 결국 얼굴에 인심이 뚝뚝 떨어지던 그 보살님은 밥을 푸지 못해 화를 내시고는 해야 할 소임들이 많은데 가버리셨다. 나는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이 착하다고 또 판단해버렸고 나름 속도 상했다. 밥 푸는 것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던 다른 보살님은 결국 밥을 푸셨지만 나는 봉사가 끝날 때까지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았다. 처음 갔을 때 그런 일을 겪었으니 계속하러 와야 되나 싶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과법을 아는 사람이 참아야지.” 인과법을 배운 자니까 나는 좀 더 착한 척을 해야 한다는 다른 해석을 하고 봉사자들 사이에 이러니저러니 말들 나올 때마다 나는 참견하지 않고 상황만 지켜보곤 했다. 그러니 견딜만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봉사를 다닐 수 있었다. 나는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기에 낯짜에 맞춰 갔는데 언제나 행구는 일은 내가 했다. 다른 보살님들은 밥을 푸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작은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반찬을 만드시고 뒤로 물러나 염주를 돌리시는 노 보살님들의

눈치를 봤다. 얼굴이 무섭게 보여서 혹시라도 호통을 치시기라도 할까봐 걱정이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호통 좀 쳐 주시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낸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몸을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그곳으로 봉사를 하러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따로 들러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다. 무섭게만 보이던 노 보살님들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고생했고, 공부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무서워 보이시던 노 보살님들 얼굴을 다시 보니 인자해 보이셨다. 눈이 따뜻하게 보였다. 한 끼를 공짜로 먹기 위해 먼 길 오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끼 대접하느라 먼 길 오시는 보살님들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렇게 늙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 좀 더 일찍 노 보살님들과 친하게 지냈다면 내 마음의 자리도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엄마는 가끔 연뿌리가 넘치게 선물로 들어오거나 감자가 넘치게 선물로 들어오면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20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갖다 드리면 노 보살님들께 덤으로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착하니 얼굴이 이렇게 예쁘지. 복덩이 얼굴이네.” 라는 낮간지러운 칭찬이지만 싫지는 않다. 물론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이 얼굴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 복덩이 얼굴을 가진 복덩이 사람이 되어 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착한 척 말고 정말 이 얼굴에 맞는 착한 사람이 되어 보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내 얼굴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단혀질 줄 모르는 그리움

쉬임없이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
바람등에 올라타 소리소리 지르고

가슴속 애절함은
날이 갈수록 살아올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얇은 구름 사이사이 별들
가슴을 닫을 때

나는 오래도록 붙어대는
바람에게 붙들려
흔들리고만 있다

육바라밀(1) - 보시·지계·인욕

덕현
법천사 전수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와 지계, 인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布施)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시는 조건 없이 베푸는 행동이며, 욕심내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해타산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

에게 베푼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 수행을 통해서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보시는 오히려 욕심과 이기심을 더 갖게 합니다.

아무런 걸림이 없이 무상(無相)으로 행하여야 참다운 보시입니다. 길 가다 만난 거지에게 보시를 행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보시행도 그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라고 합니다.

둘째는 내가 얼마를 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상(我相)을 갖게 합니다. 아상은 원망과 진에심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들추어내어 자랑하고 여기 저기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에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있습니다만, 재시와 법시가 중요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무외시의 실천이 가장 행복한 보시라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온화하고 밝은 미소, 부드러운 말씨는 본인을 먼저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 가운데 무외시를 생활화 합시다.

그 다음은 지계^{持戒}입니다. 지계는 계율은 지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지계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생활 속에서 공중도덕이나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는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일절 보지 말라. 그리고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따지고 가려 말하지 말고 나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 되돌아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실수나 잘못을 하면 그것을 들추어내어 소문을 내고, 단점을 발견하면 업신여기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단점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계의 시작이자 바탕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청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다른 이를 감싸주는 마음도 생기고, 좋지 않은 감정은 갖지 않게 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허물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살피는 것이 지계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욕^{忍辱}입니다. 인욕은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남에게서 받은 비난뿐만 아니라 칭찬에 대해서도 자제하는 것이라 합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을 잠 재워야 합니다. 자신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다 알아주며,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먼저 알아줍니다. 자신이 나서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 받았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명과 인정은 한 찰나의 차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욕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불행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자신에게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가라 앉혀서 참고 견뎌 노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여움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인욕과 하심을 투구와 갑옷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욕과 하심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수행도구입니다.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으로 참다운 보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육바라밀행이 깨달음과 공덕성취를 이끄는 수레이자 뗏목이기 때문입니다. ▲



잠시 멈추고 쉬는 것조차
남의 눈치를 보는 나를 위해서
부디 오늘만은 허락해 주세요.

맛있는 것 먹어도 되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되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도 된다고요.
내가 먼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길...

사람들은 눈치보고 살기 바쁘다고 하는데
가끔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놓는 것도 좋아요.
자신을 사랑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 헤민스님 -



내 마음속의 정원

解銓任閑居喜甚口呼

박영원(朴永元)

1791 - 1854

조선 후기 문신



歲月多從忙裡沈
閑來方是我光陰
荒階菊秀餘秋景
老圃芋香饒野心
書史欣如經別友
筇鞋輕似返巢禽
方塘雨過清漪足
一洗塵愁淨滿襟

세월다종망리침
한래방시아광음
황계국수여추경
로포우향요야심
서사흔여경별우
공혜경사반소금
방당우과청의죽
일세진수정만금

세월은 대부분 분주한 가운데서 민멸되나니
한가한 때야말로 나의 시간이로다
거친 섬돌의 국화엔 가을 풍경 남아 있고
해묵은 밭의 향긋한 토란엔 한가한 마음 넉넉하네
경서며 사적은 헤어졌던 벗처럼 반갑고
지팡이며 짚신은 등지로 돌아오는 새처럼 가벼워라
네모난 못에 비 지난 뒤 맑은 물이 흥건하니
속세 시름 한 번 씻어 가슴속을 깨끗이 해야지

- 박영원(朴永元), 『오서집(梧墅集)』 책3 「상견록(常見錄)」

전조^{殿曹}의 직임을 벗고 한가하게 지내며 기쁨에 겨워 입으로 읊다

박영원이 55세가 되던 1845년, 이조 판서에서 물러난 7월 5일과 예조 판서에 제수된 8월 29일 사이에 지은 시이다. 그는 26세에 문과에 급제 한 이후 관각, 시강원, 대각, 육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중간에 큰 침체 기 없이 관료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신병^{身病}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는 소장을 올려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몸과 마음을 쉼 기회를 얻는다.

말 한 마디 발 한 걸음 사이에도 영욕^{榮辱}이 교차하는 조정에서, 그것도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 이조의 장관^{長官}을 맡으면서도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테고 하루하루가 격무의 시간이었을 게다. 이러한 그의 심정은 그가 사직을 청하며 올린 소장에 잘 드러나 있다. 요직을 맡은 수년 이래로 능력에 비해 과중한 직책을 맡은 탓에 두려움과 분주함 속에서 심신이 모두 지쳤으며, 특히 그해 여름의 무더위를 겪는 동안 설사와 식은땀 등의 증상을 얻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분주히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세월을 잃어가고 있던 그에게 찾아온 자신과 자신 주변을 가만히 관조할 수 있는 여유는 그래서 더욱 소중했을 것이다. 계절의 흐름도 잊고 오로지 공무에만 몰두하다가 그 시공간을 떠나서 만난 섬들의 국화와 밭의 토란에서 그는 어느덧 찾아온 가을의 한 조각 모습과 누구에게나 곁을 내어주는 대자연의 넉넉한 정취를 발견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들어오는 문자가 보기만 해도 지끈지끈해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반갑고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곳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정원 한 쪽에 있는 네모난 못은 어떠한가. 서늘한 가을비가 가득 차서 열병처럼 쌓였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씻어버릴 만하다.

일과 사람 속에서 밥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지금 사람도 옛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세월이 점점 민멸되어 가고 있

지만 우리는 한가한 때야말로 나의 시간이고 그 시간에서만 내가 원하는 참다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속 한 자리에 옛 고향집 정원을 아직도 두고 그리워하며 사는지도 모른다. 당장은 가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당장은 떠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젠가 아주 오래 전 외숙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마음에 정원 하나를 그려서 그곳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셨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어렴풋이 되뇌며 살았던 것 같다. 이제 그 말을 내가 여러분께 돌려드린다. 당신 마음에 정원 하나를 그려서 그곳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아름답게 가꾸시라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 그곳에 잠시 머물며 나무와 꽃을 구경하고 그곳에 놀러온 벌이랑 나비와 함께 춤을 추시라. 그렇게 한다면 한때는 넉넉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강만문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위생관리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위생관리’라고 한다면 발톱관리, 귀관리, 목욕 및 털관리, 항문낭관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사실 하루에 한두 번정도 규칙적인 산책을 하고, 음식관리를 철저히 해주신다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호에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발톱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견의 발톱은 항상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책을 자주 다닌다면, 산책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톱은 짧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거친 지표면에 발톱이 닿으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짧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산책, 또는 한 번도 산책을 다니지 않는 강아지라면 발톱은 한없이 길어진답니다.

그렇기에 보호자님들께서 어느정도 길어진 발톱을 다듬어 주셔야 하죠. 보통 강아지들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바닥에 발톱이 닿게 되면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구요. 그런 상황이라면 ‘발톱을 정리해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발톱을 깎을 때에는 ‘발톱과 발바닥패드가 평행하게’ 유지되도록 정리를 하신다면 심한 출혈없이 잘 정리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톱관리가 어렵다면 다니시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선생님께 문의를 하시고, 발톱정리를 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톱이 너무 긴 상태로 유지된다면 발톱이 부러지는 사고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꼭 숙지하고 계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귀관리 방법인데요. 사실 강아지의 경우 귀질환(대표적으로 외이염)이 없다면 아주 가끔 귀세정액으로 세척관리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세척관리도 면봉이나 화장솜 및 껌자가위를 사용하여 닦아주게 된다면 오히려 귀를 자극해서 귀질환이 심하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척액을 귀에 넣고 마사지만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목욕 및 털관리입니다. 반려견의 목욕은 너무 자주해주시면 피부건조증이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피부병이 생겨서 ‘약욕관리’를 할 때에는 치료적 목적

으로 짧은 간격의 목욕이 지시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잦은 목욕은 피주세요. 평소에 털이나 피부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빗질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정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빗질을 해주신다면 훨씬 윤기있고 엉킴없는 털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항문낭관리입니다. 항문낭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 좌, 우측 피부속에 존재하는 작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반려견들의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변을 볼때마다 ‘항문낭액’이 정상적으로 조금씩 분비된답니다.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것이 ‘항문낭을 얼마나 자주 짜줘야 하는가요?’ 라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배변활동을 하는 강아지의 경우 항문낭을 인위적으로 짜서 배출시켜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문낭 배출에 문제가 되는 ‘항문낭염증’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반려견 스스로 배출을 하지 못하고 점점 ‘항문낭’에 액체가 차오르게 되는데, 그때는 보호자님께 주기적으로 배출을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항문낭’이라는 것은 절대 어릴 때부터 인위적으로 짜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길에서 보이는 유기견들, 또는 시골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크는 반려견들을 살펴보면 목욕도 거의 안 하고, 빗질, 발톱관리, 항문낭 관리는 아예 안 하고 크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검

사해보면 피부도 갈끔하고, 발톱은 아주 이상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있고, 항문낭도 전혀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대로 털이 축축히 젖어버리고, 제대로 말리지도 않는 데 피부는 깨끗한 강아지를 생각해본다면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피부병이 생길리는 없다 생각되지 않나요? 항문낭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짜준적이 없지만 항문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수의사로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관리는 매일 산책! 그리고 빗질! 입니다. 이외의 관리는 건강한 반려견이라면 인위적인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질병적인 부분에 의해 관리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百聞不如一見’이라고 직접 보고 배우시는 것이 글로 익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여진답니다.

반려견의 생활환경과 기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지면이 많이 부족하여 상당히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반려견의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긴다면 꼭 수의사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엄송하면 마음도 정신도 맑아져

박영자
관성사 교도



떠오른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잎도 결국은 낙엽으로 뒹굴 듯, 우리네 인생도 엄마의 산고의 고통을 등에 업고 태어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배우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다, 결국은 늙고 병들어 업 지은대로 가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은 모두가 한 가지로다.

좋은 연으로 좋은 부모 슬하에 태어나 행복했고 좋은 연을 쌓아서 좋은 배필을 만나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왔으니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저는 13살 때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자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남들이 하라는 것을



그냥 따라 하면서 졸레졸레 생각 없이 오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처음 뵈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법장화 전수님”이십니다. 웃는 모습이 무척 온화하고,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기쁨이 묻어나고 카리스마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저를 붙잡고 하루는 전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자성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옴마니반메흠’을 열심히 외우다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사실 옴마니반메흠에 대한 정확한 뜻도 알지 못했지만 전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기에 찰떡같이 그 말만 믿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디 놀러 가지는 친구들의 유혹도 뿌리치고 절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여름이면 온갖 날벌레와 모기들이 사납게 달려들어 얼굴과 몸을 물어뜯을 때에도 오로지 ‘옴마니반메흠’ 진언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이 급하여 바지에 오줌을 지릴 지경이 되어도 손에서 염주를 놓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참고 또 참으며 ‘옴마니반메흠’을 외웠습니다.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언제나 집과 학교 다음은 절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공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염송을 하고 난 다음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것을 확연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방학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먼저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에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관청의 기관장이라면, 힘이 있을 테니 나 한 명 정도는 그분의 재량으로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무작정 이력서를 써들고 책가방에 넣은 다음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우스우면서도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직 그 방법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느껴졌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관청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직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제일 높으신 분은 국장님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고개를 돌려보니 저 안쪽에 국장실이라고 써진 방문이 보였습니다.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저는 국장 방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국장님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올린 다음 용건을 꺼냈습니다.

“취직을 하러 왔습니다.”

국장님은 황당한 얼굴로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은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야. 따뜻한 차 한 잔 타줄 테니, 이거 마시고 집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 시절은 6.25를 막 치른 1960년대 초였으므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공채라는 제도라는 것이 정착하기 전이었기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줄’이라는 게 있어야 취업 덕을 볼 수 있는 시기였

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줄’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옴마니반메흠 부처님’이 줄이요. 뻥이었습니다.

국장님의 거절에도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종종 전수님께 들은 법문 이야기도 하고, 학교 생활담도 들려드리고, 제가 보고 느낀 일상의 소소하고 잡다한 것들도 모두 말하면서 국장님과 허물없는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도 국장님은 그런 저를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귀엽게 봐주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까, 하루는 국장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력서나 한 번 보자.”

저는 늘 가방에 품고 다니던 이력서를 열른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졸업하는구나.”

국장님이 저를 다시 한 번 바라봤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고 얼굴도 어려 보였기에 저를 중학생 정도로만 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관청에서 일을 하려면 초반에는 임시직원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저는 국장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여 저도 모르게 ‘옴마니반메흠’이라고 크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제 고함에 국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니?”

“아, 이것은, 음, 주문 같은 것인데 이것을 외우면 이루지 못하는 것

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옴마니반메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국장님이 첫 출근 날짜를 일러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넘죽 절을 올리고 출근 시 필요한 것들을 수첩에 적어 나오는데 터질 듯한 행복과 설렘으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종걸 국장님이 아니셨다면 제 인생에 국가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17년간 달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강종걸 국장님은 부처님이 제게 보내 주신 당신의 분신이자 선물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전체를 아울러 부처님의 덕을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동네 어귀의 박수무당 단골이셨던 시어머니를 제도하여 ‘옴마니반메흠’ 진언의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결혼 전 교회활동에 열심이던 남편 역시 제도하여 새벽이면 함께 무릎을 나란히 하고 정송을 합니다. 일요 자성일이면 손을 맞잡고 관성사로 향합니다. 그런 저희를 본 동네 주민들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라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우애 좋은 4남매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옴마니 반메흠’ 진언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외손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꿈을 꾸었다 하면 자꾸 가위에 눌리는 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 옴마니반메흠 부적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저는 기특한 마음에 손녀딸에게 염주와 호신다라니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항상 옴마니반메흠을 열심히 외우면 밤에 무서움 없이 잠도 잘 잘 수 있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을 게다.”

그 일이 있는 지 며칠 후 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딸이 “옴마니반메흠”을 염송하며 염주를 열심히 돌리고 있으며 잠을 잘 때에도 염주와 다라니를 안고 잔다고 했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행여나 제가 옴마니반메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그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옴마니반메흠이란, ‘몸과 마음을 배풀어서 보석 같이 지혜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자.’는 뜻이었습니다. 제 나이 78살이 되어서야 외손녀 덕에 ‘옴마니반메흠’의 제대로 된 뜻을 깨우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가 처음 접하게 된 ‘불심’은 제 인생의 전부, 제 인생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쁠 때에나 힘이 들 때에나 좋을 때에나 나쁠 때에나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고 수호해주는 든든한 ‘뻥’이 되어주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바람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오직 ‘불심’만이 제게 남은, 저를 위한 유일하고 튼튼한 ‘줄’이요, ‘뻥’입니다. 오늘도 그 ‘뻥’에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옴마니반메흠.’ ♪

조리와 속리 2

보현

실보사 전수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
다. 해안가에 나가 떠밀려오는 물풀들을 먹는 것이 그나마 다였고 밤에
는 추위와 무서움에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까.. 이틀이 지났을까.. 속수무책으로 추위와 무서움과 굶주림에 떨던
조리와 속리는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우 속리가 새 어머니에게 속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음을
한탄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형 조리가
아우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위로합니다.

“속리야. 나도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새어머니를 원망했단다. 그

려나 이리 원망한다고 바뀔 상황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 단지 아버
님께 효도를 하지못함이 죄송스럽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남을 돕는 홀
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 속상해. 차라리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
어날 때는 이 고통을 체험삼아 우리와 같이 비운에 우는 사람들을 구원
해 주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곧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길인 것
을 일찍이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아우는 형의 말뜻을 알아듣고 울음을 그치고 밝은 얼굴
이 되었습니다.

형과 아우는 자신들의 누더기 옷에 손가락을 찍어 나온 붉은 피로 서
원을 적어나갔습니다.

“부모 없는 설움으로 슬픔에 젖은 사람에게는 대성자모자부가 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절할 벗이 되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며,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되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밥이 되며, 병든 중생들에
게는 명이가 되고 양약이 되어 고쳐주며,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생
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투어 구제하겠노라.”

동생 속리 또한 서른두 가지 서원을 쓴 뒤 조리와 속리는 서로를 부
둥켜안고 숨져 갔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아이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섬을 찾아내었지만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섬에 남아있는 것은 아이들
의 하얀 유골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이들을 버린 이

들에 대한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찰라 자신의 아이들이 누더기 천 조각에 피로 콕콕 눌러 쓴 대비발원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자 한자 읽은 아버지는 그 비장함에 자신의 수족을 모조리 부수어 붓을 삼아 사십팔원의 원을 쓰고 불쌍한 두 아들의 백골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서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외롭고 쓸쓸히 죽은 이 섬의 이름이 보타락가산이며 아버지는 아미타여래, 형 조리는 관세음보살, 동생 속리는 대세지보살이 되어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으로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가 보살입니다.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이가 보살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염송하고 수행하여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어 일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생활의 터전에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미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분명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남을 돕나 싶어도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을 생겨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리이타의 수행은 결국은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이어갑니다. ♣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메달라간다고 느끼는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주위에서 찾아 느껴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 헤밍스님 -



푸르른 날에는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누구에게나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먹먹하고 아련해지는 이름 한두 개 정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나직이 소리 내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젢이 빠근해지는 느낌, 그 눈물 담은 단어를 그리움이라 부르자.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 댈 얼굴들이 누구에게나 또한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간직해온 서랍속의 낡고 빛바랜 편지처럼 기억 속에 꾸깃꾸깃 접어 둔 유년의 첫사랑일 수도, 고단한 인생길에 함께 걸어 준

동무이거나, 외로운 求道의 길에서 만나 정신적인 허기를 채우던 그 이일 수도…….

그리움이라는 우리말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이글거리던 태양의 손길에서 벗어나 적당히 선선해진 바람과, 손끝으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맑은 물이 졸~ 흘러내릴 것 같은 쪽빛의 투명한 하늘, 몽실몽실 구름은 시시때때로 모양을 바꿔 마음을 더 간지럽히니 말이다.

이른 새벽에 열어젖히는 창문너머 저만치서 별뿔뿔 하나 흘러간다. 가까이서 하얀 시소 같은 초생달이 혼자 기우뚱거리고 동무를 기다린다.

가을이다.

아직은 초록빛 짙은 잎에 가을이 기별을 넣었는지 드문드문 갈색잎이 반갑다. 가슴에 푸르른 강물 하나 흐르게 하여 가만가만히 그리움의 뚝단배 하나 띄워도 좋을 계절, 가을이다.

일상에 떠밀려 밀쳐 뒀던 애뜻한 감정들과 세월에 묻어 둔 기억들 꺼내어 잠시 잔잔하게 물들여도 좋을 일이다.

가을엔 부디, 그리움을 그리워하자. ♪

차 도구의 중요성 1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다기茶具와 다구茶具

다기란 차를 담아서 불전에 공양하는 도구로 부처님에게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에 사용하는 공양 법구의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기라는 명칭은 진대^{眞代} 이후에 생겨난 말이며, 당대에 이르러 비로소 다기茶具와 다구茶具의 명칭이 확실하게 구분지어집니다. 문헌에 따르면 채다^{採茶}(차를 따고), 조다^{造茶}(차를 만드는)하는데 필요한 모든 연장을 일컬어 '다구茶具'라 명칭하고, 차를 우려내거나 혹은 삶아내고, 마시기 위한 제반 집기들을 가리켜 '다기茶具'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구'와 '다기'의 용도와 명칭의 구분이 불분명해지

게 되기 시작하면서, 다구와 다기를 합하여 모두 '다구茶具'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구와 다기는 거의 구분이 없이 모두 '다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구茶具'의 의미는 차를 따고,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연장(농기구)의 의미에서부터 차를 우려내고, 마시기 위한 용기나 집기에 이르기 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고 '다기茶具'는 차를 우려내고 마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기의 선택

전통적인 다기는 도예가들의 손을 거쳐 전통적으로 흙을 빚어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재질로 만든 새로운 다기들이 많이 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자는 다기의 대명사로 순백색을 띠는 것이 좋으며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갖고 싶어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고 겨울에는 좀 차갑게 느껴 집니다. 청자는 녹색과 색이 겹쳐 차색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름철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청은 거친 질감과 자연스러움이 현대인의 기호와 잘 맞고 최근에는 지나치게 거칠고 색이 짙어지는 경향이 있어 찻종 안은 옅은 색을 칠해 차색을 볼 수 있게한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재질로 된 다구는 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유리재질의 다기는 보온이 떨어지지만 차가 우려나오는 모습과 말린 찻잎이 물과 어울려 퍼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구를 선택할 때에는 먼저 차의 특성을 생각해 선택해야 하고 싫증이 나지 않고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자신과 잘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싸면 좋을까 해 다구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다구는 과시용이 아닌 차의 진미를 잘 끌어내어 주는 그릇이라는 데 그 가치가 있지 싶습니다. 그릇이 지나치게 호화스러우면 차의 운치를 잃고 차의 원숙한 경지는 값이 비싼 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다구를 선택함에는 가격과 명성 있는 작가의 작품보다는 쓰기에 편리하고 내가 마시려는 차와 적합하면 될 것입니다.

다구의 선택은 그 사람의 기호와 특성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를 마실 때 어떤 다기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막막하고 복잡한 듯 하지만 차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어렵게 생각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우리의 녹차는 맛으로 중국의 차는 향기로 일본의 차는 색으로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차는 주로 백자, 청자, 분청자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빛깔이 맑고 깨끗한 색의 잎차를 선호하기에 백자와 청자가 차의 푸른빛을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차의 진한 향을 즐기는 중국차는 자그마한 다관(자사호)에서 차를 우려내 우리의 찻잔보다 작은 잔에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찻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향을 맡기 위한 찻잔이라 하여 문향배(聞香杯)가 있습니다. 보이차에는 쓰지 않고, 주로 우롱차에 쓰이고 가늘고 긴 원통형 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효차

인 우롱차(오롱차)는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우려내므로 그냥 마시면 뜨겁기 때문에 중국에서 문향배가 시작 되었다고도 합니다. 일본의 차는 탁한 녹색이 우려나는 옥로차나 말차에는 녹색을 강렬하게 해주는 청자나 회백색의 분청이 좋을 것입니다. ♫



부처님을
보았는가여순애
자석사 교도

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약이 많아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 폭이 좁다.

묵묵히 절에 다니며 건강을 소원하면서 사는 게 내 중요한 일과다.

절에 노보살님들이 말씀하시길 ‘평생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이라 한다.

그런데 사실 난 아직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일까 난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부처님을 만난다 하여 부처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평소 내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니 부처님이 꿈으로 법을 보여주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당채설법을 자주 본다.

탐·진·치 삼독심에 가려 괴로운 마음으로 길을 걷다보면 나처럼 아픈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루 일과 중 내 마음 따라 회초리 같은 꾸짖음을 부처님이 해 주신다. 그러면 난 마음을 바꾸어 탐심을 버리고 성낸 마음을 가라 앉히고 인내심을 가진다.

그리고 불공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알 수 없는 특별한 경지에 다다른다.

사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와 닿고,

‘내가, <옴마니반메훔>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 나도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길을 열어 준 계기가 있다.

어느 날 총지종 사원을 방문하였을 때 전수님께서 부처님 법을 믿어서 마음의 병을 낫게 된 경험담을 말씀하셨다. 그때 그 법이 마음에 와 닿으며 ‘정말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찰나부터 지금까지 이십년의 세월동안 염주를 쥐고 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그리고 내 숙제가 풀린다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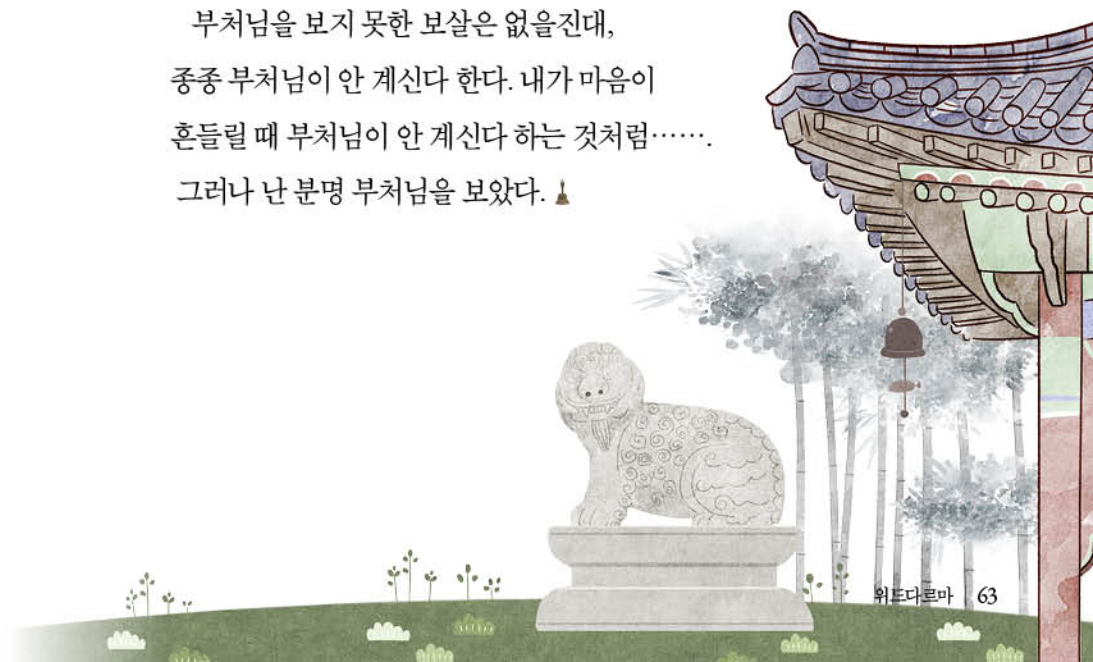
복잡한 삶이 아니지만 종종 우울하고 외롭고 할 때가 없으란 법은 없다. 난 그럴 때 절에 간다. 며칠을 연달아 가다보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나 싶게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다.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가끔씩 힘든 일이 생기면 무난히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럴 때 부처님을 보았다고 난 말하고 싶다.

괴로움도 행복함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보지 못한 보살은 없을진대, 종종 부처님이 안 계신다 한다.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난 분명 부처님을 보았다. ♪



참새

Tree sparrow (*Passer montanus*)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영원히 여름날만 지속될 것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던 햇살도 기울고 그 여름도 벌써 추억이 되었다. 사무실 옆 논은 벌써 추수가 끝나고 속흙을 드러내고 있다. 논 흙이 마르지 않고 질퍽하게 물이 고인터라 뽕검 등오리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떨어진 벼씨와 지렁이를 비롯한 다양한 물 속 생물을 먹느라 논 안이 시끌벅적하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가을철 황금들녘의 풍성한 소식과 더불어 참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한 기사가 그림자처럼 늘 한 꼭지를 차지하던 때가 있었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어느 지방 인터넷 신문에서 참새가 풍년을 기원하는 농심을 올린다는 내용의 기사 하나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참새, 정말 흔한 종이다. 많은 이야기 속에, 유머(참새시리즈)속에 그리고 모든 이의 추억속에 참새는 가득하다. 필자의 경우도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연이 있었던 종도 참새이다.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아이들과 몇 날을 씨름하다 소여물을 위해 모아둔 남의 집 벼짚 모두를 홀라당 태우기도 했고 새끼를 꺼내려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내기도 했다. 애써 잡아 키우던 참새를 고양이에게 빼앗겼고, 훈련소에서 훈련 중 주운 참새 새끼를 몰래 관물대에 넣어 키우다 살벌한 점호 시간에 들키기도 했다.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참새 목욕하는 걸 구경하다 징계를 받을 뻔한 적도 있는 등 많은 추억이 참새와 함께 한다. 그러나 그 흔한 참새가 줄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50년대에는 950만마리의 참새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70년대에는 1200만마리까지 증가한 이후 최근까지 25년간 62%가 줄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이후 8년간 44%가 감소했다고 한다.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 살포가 주원인이며 이로 인한 곤충과 식물 감소로 인한 먹이 자원의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다. 참새의 경우 흔히 알고 있듯 대체로 식물의 씨앗이나 벼씨를 먹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먹어 치우는 곤충량도 상당하다. 특히 번식기 때는 먹이의 대부분을 곤충 애벌레에 의존하므로 해충 제어에 많은 역할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참새와 같은 작은 조류를 통해 해충을 구제한 경우 농약 살포로 인한 것보다 과수의 수확량이 25% 증가하였다고 한다. 학자들은 참새의 수가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또한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새 Tree sparrow(*Passer montanus*), 섬참새 Russet sparrow (*Passer rutilans*), 집참새 House Sparrow (*Passer domesticus*) 등 총 3종의 참새가 있다. 참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새 중에 꼬까참새라는 종이 있지만 이는 되새과에 속하는 새로 참새와

는 다소 거리가 있다. 참새의 경우 몸길이는 약 14cm 정도이며 머리의 위쪽은 짙은 밤색이며 눈 주변과 턱, 먹은 검은색이며 뺨에도 검은색의 반점이 있다. 머리와 뒷목은 다갈색이고 눈 밑과 귀깃 뒤쪽, 턱밑, 먹은 검정색이다. 뺨은 전체적으로 흰색이며 등은 갈색과 검은색의 깃이 혼재한다. 암수 모두 동일한 깃을 지니며 새끼는 어미보다 옅은 색을 띤다. 나무 나 가옥의 구멍에 둥지를 틀며 까치 둥지의 빈틈에 둥지를 짓기도 한다. 보통 5-6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포란한지 2주 후에 부화한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며 북미에도 도입되어 분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흔히 번식하는 텃새이며 수명은 대체로 2-3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섬참새의 경우 암수 형태가 다르며 수컷의 경우 전체적으로 참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뺨에 검은 반점이 없으며 등과 머리는 붉은 갈색이다. 또한 턱 밑과 먹의 검은 반점이 참새보다 작고 세로줄 무늬이다. 암컷의 경우 몸의 윗면은 옅은 황갈색이며 흰색의 뚜렷한 눈썹선이 있다.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사할린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및 일부 섬 지역에서 번식하며 겨울철에는 북쪽 지방에서 남하한 개체군과 함께 동해안



▲ 꼬까참새



▲ 섬참새



▲ 집참새

을 중심으로 내륙에서 월동을 한다. 최근에는 내륙에서도 번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집참새의 경우 수컷은 머리는 붉은 갈색이며 이마에는 회색의 반점이 있다. 그 외 눈 주변과 먹은 검은색이며 몸의 아랫면은 밝은 회색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며 아랫면과 허리는 밝은 회색 빛을 띤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며 북미와 남미, 남아프리카, 호주에도 도입되어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5월 18일 대흑산도에서 처음 관찰되어 분포한다. 국내에서 흔하지 않게 관찰되는 나그네새인, 이름에 참새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꼬까참새는 참새와는 거리가 먼 종이지만 이 종의 현실에서 참새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꼬까참새 또한 이동시기면 산림 외 광지역이나 농경지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는 종이었지만 대량 포획과 농작물의 변화로 인해 불과 20여년 만에 개체수가 급감하여 최근에는 관찰하기 쉽지 않는 종이었다. 당시만해도 이렇게 보기 어려운 종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 사라짐의 대열에 어색하지만 참새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1965년 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농약의 사용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중국엔 봄이 와도 꽃이 피질 않고 새가 울지 않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봄, 침묵의 봄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침묵의 봄은 온다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고 이날이 오면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UN에서는 경고하고 있다.

참새 없는 조용한 가을을 맞다 보니 혹 그날이 저 모퉁이 너머에 바로 있거나 없을까 싶기도 하다. ▲

보살의 길

윤홍식
홍익학당 대표

한편으로는 참나의 각성을 통해 늘 세상을 초월한 고요함에 머물되
한편으로는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생사윤회 속에서
아주 작은 선행도 놓치지 않는 이가 '보살'입니다.

'참나의 각성'은 '마음의 중심점'을 찾는 것이며 '육바라밀의 실천'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둘을 두루 갖추고 널리 중생을 돕는
이가 '보살'입니다. '바라밀'이란 '궁극,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보시바라밀'은 '보시의 궁극의 보시'입니다.

집착을 가진 '에고'로 하는 보시는 '궁극의 보시'가 아닙니다.
무집착의 '참나'로 하는 보시만이 '궁극의 보시'입니다.
그러니 육바라밀의 실천은 오직 '참나각성'으로 가능합니다.

'에고'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무시하자고 할 때 에고와 싸우지
말고 먼저 "오직 모른다!"라고 하여 '참나'와 하나가 되십시오.
이점이 중요합니다. '에고'와 싸우지 마십시오.
에고와 싸워서 '에고 놀음'에 빠질 뿐입니다.

곧장 '참나'와 하나가 되면 '나와 남을 가르치 않는 참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에고'가 분노로 이글거릴 때도 곧장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는 결코 분노에 이글거리지 않습니다.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내십시오.
이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에고'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도 곧장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를 결코 게으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게으름을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정진바라밀'입니다.

'에고'가 흔들리고 산란해질 때도 곧장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는 결코 요동하거나 산란하지 않습니다.
'산란함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산란함을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선정바라밀'입니다.

'에고'가 어둡고 어리석어질 때도 곧장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는 결코 어둡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광명한 참나의 힘'으로 무지를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이며 '참나의 각성'은 '육바라밀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본체와 작용이 두루 갖추고서 온 우주의 중생을
널리 교화하고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
인 '보살의 길'입니다. ♣



내 스무 살 그 날, 나를 당황케 한 것은 뜻하지 않은 비였다.
“투명한 코발트빛이 이런 색이로구나, 이런 색이라면 그 속에 녹아내려도 서러울 것 없겠구나.”

생각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공부하러 나갔다가 그곳 처마 밑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마주하고 있었다.

비 맞은 중이 중얼거린다고 했나? 왜 중얼거리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볼 겸 거친 빗속으로 나가려다 하늘이 잠시 숨 고를 때를 기다리자 싶어 멈추었던 발길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빗속 세상을 맛봐야 할 모양이다. 순간, 내 눈을 커지게 한 그의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한 학생이 내게 우산을 내민다. 얼마나 뛰었던지 몸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스님, 제가 요 근처에 살거든요. 비 맞고 가셨으면 어떡하나 했어요.” 함께 공부하던 학생이다. 집이 가까이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비 맞고 갔던 길을 되돌아 온 터이다. 우산을 전해 받고도 할 말을 잃어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빗속을 다시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우산 속이 그렇게 충만한 줄을, 처음 알았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우산 속에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우산 속에 있었다. 우산이 있다고 하여 옷자락이 젖지 않는 것도 아닌데, 기분 좋은 설렘까지

포함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행복한 느낌이 그 안에 다 있는 듯하였다. 그것은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운 것이기도 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기도 하고, 착한 청년 하나가 전해준 우산 하나에 비오는 세상이 푸른빛으로 변하기도 한다.

우리의 정신적 의지처, 부처님은 “작은 선행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찮은 일이 무슨 공덕이 될까 여기지도 말라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마침내 큰 장독을 채우니 조금씩 쌓은 공덕이 모여 지혜로운 이의 크고 원만한 복이 된다.”고 하셨다.

그가 전해준 것은 우산 하나, 공덕으로 치면 물방울 하나쯤, 그가 빗속을 뚫고 갔다.

온 마음, 공덕으로 치면 물방울 열 개쯤, 그 마음이 전해져 세상의 행복이 내 가슴에 다 들어가 있을 즈음, 물방울은 불고 불어 이미 방울로 표현되기엔 넘쳐버린 맑고 맑은 공덕. 행복이 어디 우산 속에만 있을까. 완두콩으로 하트를 그려 넣은 도시락에도 있을 것이며, 기대고 싶을 때 빌려주는 어깨에도 있을 것이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전화기에도, 보육원에 과자를 사들고 가는 손에도, 홀로 사는 노인을 씻겨드리는 손에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에도. 우리 아이를 꼭 품어주는 가슴도 한 방울의 물이 아이에게 전해져 한 독 가득한 물로 불어날 것인데, 이자 치고 이렇게 푸짐한 이자는 세상에 으뜸이다.

행복이자는 대가를 청구하지도 않아 지고지순한 짝사랑보다 더 일방적이며 첫눈에 반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비가 오면 가끔 그 학생

을 떠올린다. 지금도 자신은 비를 맞아가며 다른 사람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챙겨주고 있을까? 아니, 우산이 아니어도 제 성품 남 못 준다고, 버스에 앉아 있다가 약자가 오면 벌떡 일어날 것이며, 주말이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무릎을 태워줄 것이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을 곳곳에 심어 그 물방울이 무한히 커져 이렇게 비가 되어 내 추억을 꺼내게 하는 모양이다. 내 스무 살 그 날, 그래서 하늘은 그토록 눈이 부셨나보다. ♣



홍밋거리로 만들다

범일
벽룡사 주교



어느 마을 추장이 개울가로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다리 한가운데에 돈주머니를 갖다 놓게 하고, 마을
에서 가장 가난하고 빚이 많은 사람에게 다리 건너편에서
마을 사람들이 있는 이쪽으로 건너오게 했다.
추장은 그 사람에게 다리를 건너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귀뜸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가
다리를 건너오기를 기다렸다.

신호와 함께 그 사람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가 다리
를 다 건너오자 추장이 물었다.

“다리 가운데서 뭐 보지 못했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말이지!”

“예. 다리를 건너다가 좋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눈을 감
고 건너면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
을 감고 건너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자 했으나 그 사람은 더 재미있는 거
리를 찾아다녔다. 해서 다리 가운데 돈주머니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어떤 일
이라도 재미있는 홍밋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홍밋거리를 두고 있나요?

어디에 재미를 만드나요?

어디에 한마음 다해 집중하나요? ♪



의도

思

思 생각 - 사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전통적 비유에서 의식은 마치 왕이 수행원을 동반하는 것처럼 결코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에는 기본적 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형성하며 지휘하는 마음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된다.

팔리어 아비담마에서는 이들 마음의 요소를 모두 합해 52개로 열거하며 마음속 내면의 풍경을 정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마음의 요소 중 2가지(느낌과 지각)는 독립된 온^ṇ Khandha인 반면, 나머지 50가지는 모두 51번째 온인 형성력^{行, sankhara}에 속한다.

의식 느낌 지각은 모두 ‘~을 알다’라는 동사에 기반하는 단어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형성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을 행하다’라는 동사에 뿌리를 두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갈래의 정서적 반응에 걸쳐 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나 바람을 행사하게 하는 마음의 능동적 요소인 의도^{思, cetana}는 형성력에 속하는 단어이다.

명상은 현재에 있기 위해, 또는 경험의 장

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의도적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무선택적 알아차림 choiceless awareness’의 경우에서와 같이, 설사 마음을 애써 감득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모든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쏟는 특정한 의도가 존재한다. 의도는 마음의 실행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능력의 힘으로 결정을 내리고 까르마를 낳는다.

의도가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마음 요소인 주의^{作意, manasikaro}를 어디에 어떻게 기울일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명상은 의도를 담아 주의를 특정 경험의 대상에 향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명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의 초점을 맞추거나^{心一境性, ekaggata} 또는 단일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요소는 모든 유형의 명상에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의 힘이 상당히 증강되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마음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재빨리 옮겨가거나, 공간적으로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돌아다닌다면, 마음은 어떤 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심도와 안정성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즉 의식·의도·주의를 한 지점에 맞추는 것은 마음의 역량을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정^{禪定, jhanas}이나 몰입처럼 명상의 모든 형태에 필요한 마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유야무야

有
耶
無
耶

有 있을 - 유	耶 어조사 - 야
無 없을 - 무	耶 어조사 - 야

-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텅한 모양. 흐리멍텅하다. 어물어물하다.

- 우리말 가운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표현에서 이 말의 뜻을 찾을 수 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니, 결국 아무 말도 아닌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음이 유(有), 무(無) 양 변에 쏠리어 주저 주저하고 결정을 못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불교에서는 사구분별(四句分別)이라 해서 어떤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 네 가지의 논리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상(事象)에 대해 있다(有)고 보는 견해와 없다(無)고 보는 견해, 있으며(有) 또한 없다(無)고 보는 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견해다.

그래서 결국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면 형이상학적인 명제(命題)에는 대답을 안 한다. 즉 <유야무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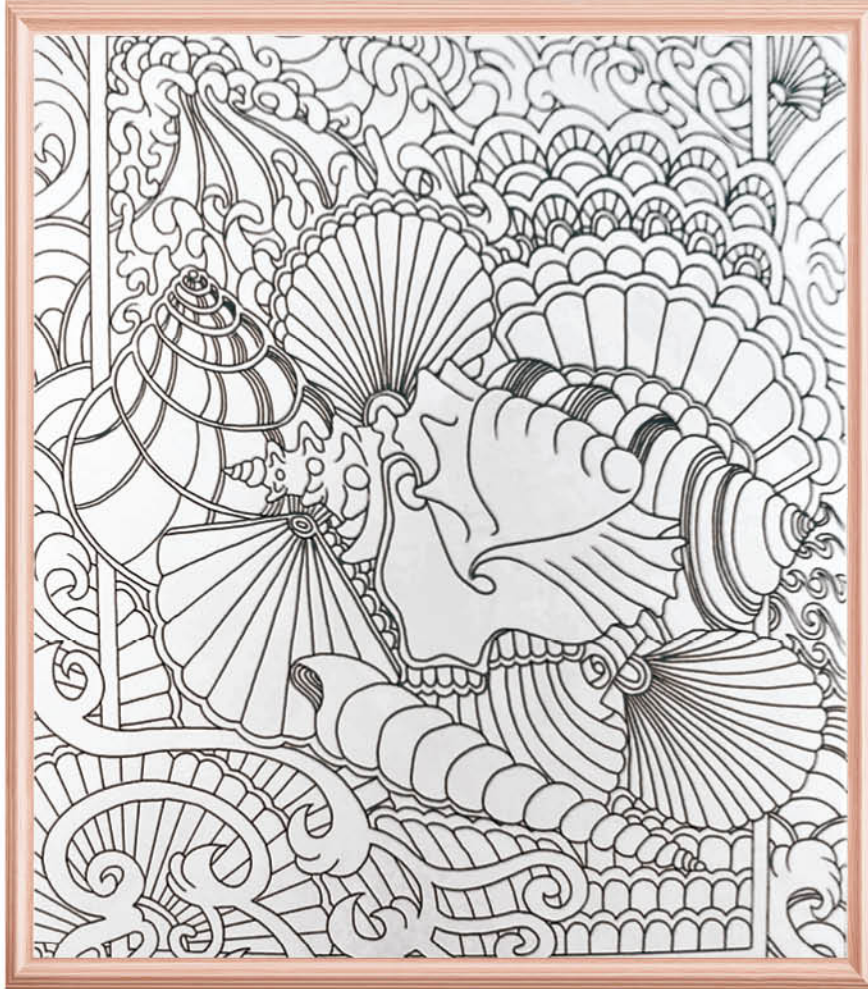


<유야무야>란 있느냐? 없느냐는 선적(禪的)인 질문이다. 이른바 선 문답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론 없는 상태를 유야무야라고 하게 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흐지부지되고 만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지난 호 독자 솜씨



▲ 대구 김정남 님



▲ 울산 김화영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7(2018)년 10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편집 후기

10월 엽서

- 이해인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잘 익은 석류를 쪼개 드릴게요
좋아하는 말 대신
탄탄한 단감 하나 드리고
기도한다는 말 대신
탱자의 향기를 드릴게요
푸른 하늘이 담겨서
더욱 투명해진 내 마음
붉은 단풍에 물들여
더욱 따뜻해진 내 마음
우표없이 부칠테니
알아서 가져가실래요?
서먹했던 아들끼리도
정다운 벗이 될 것만 같은
눈부시게 고운 10월 어느 날

맑고 청량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이다.
이 계절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
그리고, 잠시 잊었던 벗에게 안부를 물어야겠다.

10월호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도 어렵다
그러니 이 불법 인연을
어찌 소홀히 할 것인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도반과 함께 어울리니
극락이 바로 여기구나

- 환당 대증사 -